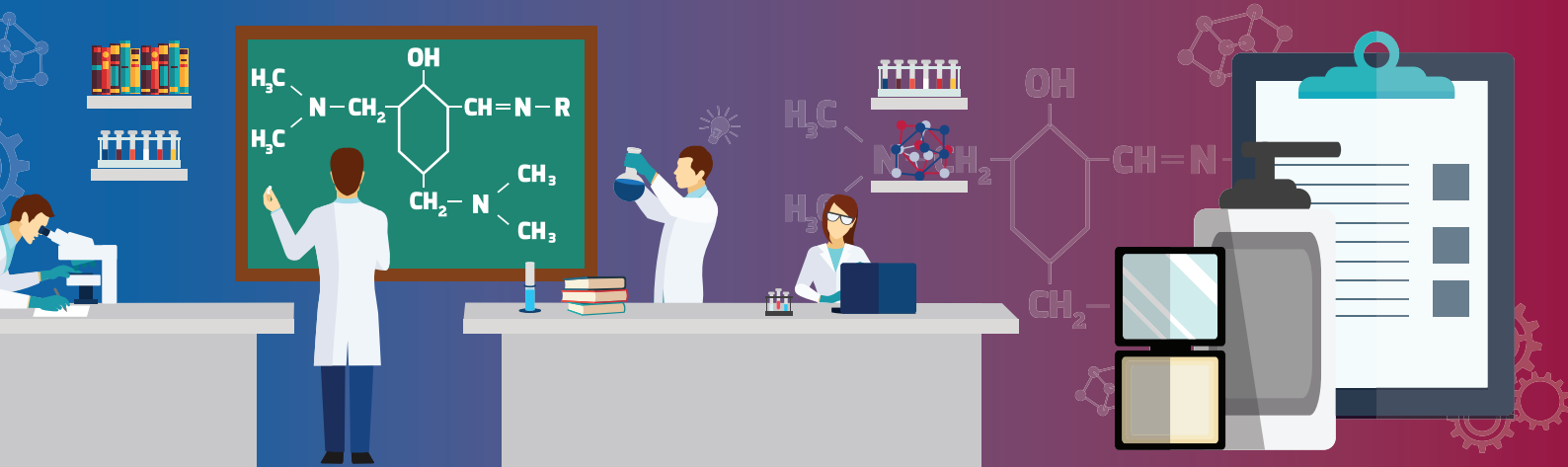


WITH KITECH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주)케이알의 기술 개발 이야기



인류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그릇’

화장품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특권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화장품을 담는 용기를 일컫는 것이지요.

음식이 공기와 접촉하면 신선한 맛과 영양을 금방 잃듯, 화장품도 그러합니다.

(주)케이알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신선한 상태로 오랫동안 보존해주는 용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장품이 공기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장품 용기 시장에 신선한 바람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명 ‘에어리스(Airless)’ 기술입니다. 아름다움이 더욱 오랜시간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기술, (주)케이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